

지역사회 참여의 미시적 기반에 관한 연구: 서울 지역의 사회자본(social capital)과 장소성(sense of place)을 중심으로

최석현 ■ 연세대학교*

왕혜숙 ■ 홍익대학교**

〈국문요약〉

본 연구는 서울 시민들의 지역사회 참여를 추동하는 관계적, 심리적 요인들을 분석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역 거버넌스 구축의 미시적 조건을 밝히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지역주민들의 지역사회 참여 활동으로 거버넌스적 사회참여(지방정부 정책 참여), 갈등적 참여(집회와 시위 참여), 제도적 참여(투표 참여)로 설정하고 각 참여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17년 서울서베이 자료를 활용하여 제시된 세 가지 사회참여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시민들의 관계적, 심리적 요인들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는 비제도적 지역사회참여 활동인 지역거버넌스 참여와 갈등과 시위 등 갈등적 참여는 공히 사회자본과 시민들의 지역에 대한 심리적 태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역정체성과 같은 심리적 태도는 비제도적 사회참여에 공히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지역에 대한 심리적 태도가 비제도적 사회참여의 추동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또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가 보여주고 있었다. 더 나아가, 사회자본적 요인인 지역사회 소속감은 거버넌스적 참여에는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지 못하는 반면 갈등적 참여에는 부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민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연대의식은 거버넌스적 사회참여보다는 지역 사회의 갈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분석결과는 서울 시민들의 사회자본과 지역에 대한 심리적 태도가 각 사회참여 유형에 따라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지역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웃과의 신뢰와 공동체 소속감 등 기존의 사회자본적 요인과 더불어 시민들의 지역에 대한 심리적 태도 또한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보여주고 있다.

*주제어: 지역사회 참여, 거버넌스, 지역 사회자본, 장소성

* 주저자, 연세대학교 빈곤문제국제개발원 초빙연구원 (E-mail: shsego@yonsei.ac.kr)

** 교신저자, 홍익대학교 교양부 초빙교수 (E-mail: wang1341@gmail.com)

I. 서 론

지역 사회의 발전과 통합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정부만의 개입이 아닌 시민들의 자발적 사회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Evans 1996). 그렇다면 무엇이 아래로부터의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가? 많은 학자들은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사회자본에 주목해왔다(Putnam 1993). 그리고 개인들 간의 신뢰와 호혜성으로 구성된 연결망이 개인이 기회주의적 행동을 미연에 방지하고 집합행동의 딜레마를 해결함으로써 사회발전을 위한 협력을 추동한다고 여겨져 왔다(Evans 1996; 김선혁 외 2006; 이숙중·유희정 2010). 하지만 구체적으로 사회자본이 시민들의 지역사회 참여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분석결과가 여전히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요인들이 연구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사회자본이 사회참여 유형에 따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도 여전히 불명확하기 때문이다(박병진 2007). 더불어, 시민들의 지역사회 참여가 온전히 사회자본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알려지지 않은 다른 요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효과를 발휘하는 것인지 역시 밝혀져야 할 연구과제들이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 변화를 위한 주민들의 참여의 동인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기존 연구들에서 중요한 동인으로 주목해왔던 사회자본의 효과를 검증해본다. 또한 사회자본 외에도 지역사회 참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안적 변수로서 태도이론(attitude theory)에 근거하여 개인의 지역에 대한 심리적, 인지적 태도를 변수화하고, 그 영향력을 측정, 비교해본다. 사람들 간의 관계, 즉 네트워크의 성격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회자본 논의와 달리, 장소에 대한 태도이론에서는 개인의 장소 혹은 지역에 대한 심리적 태도가 지역사회 참여를 이끄는 또 다른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즉, 본 연구는 시민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심 및 지역정체성, 시민들의 장소성(sense of place) 등 거주 지역에 대한 심리적 태도를 사회자본 요인과 구별하여 사회참여와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는 시민들의 다양한 지역사회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사회자본적 요인과 개인의 지역 공간 및 장소에 대한 심리적 요인들을 동시에 살펴봄으로써 시민들의 지역사회 참여의 미시적 조건을 탐색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두 변수들 가운데 무엇이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가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본 연구는 시민들의 지역사회 참여 유형을 구

분하여, 이러한 참여의 다양성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특히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유형론적 접근(typology)을 통해, 단순히 사회참여의 빈도와 정도를 기준으로 한 선형적 비교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시민들의 지역사회 참여 유형은 일반적으로 투표를 통한 제도적 참여와 집회와 시위 참여와 같은 비제도적 참여로 구분되어 왔다(Marrien et al. 2010). 그동안 우리사회가 정치적 민주화를 거치면서 제도적 참여와 갈등적 참여는 시민들의 개인적 이익의 표출과 사회적 변화의 요구를 반영하는 중요한 통로로서 일반화되어 왔다. 그러나 두 유형의 참여 유형 모두 지역 특수적 이해와 결부될 경우, 특정 지역의 이익만을 배타적으로 추구하는 지역적 투표행위나 지역이기주의로 표출될 수 있다는 문제를 보인다. 참여의 양적인 활성화가 아니라 어떤 유형의 사회참여인지에 대한 질적 고려가 중요함을 상기시키는 대목이다.

또한 최근에는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와 사회적 양극화로 인하여 심화되고 있는 지역간 불평등 및 개인과 집단의 복지 욕구의 확대에 대응하고자 시민들의 적극적 지역사회 참여가 강조되고 있다. 다양해진 복지욕구와 더불어 복잡화된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정책과 공공서비스로만으로는 대응에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통하여 아래로부터의 사회문제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정치권은 마을만들기, 사회적기업, 그리고 도시재생 사업 등을 시민들의 참여에 기반하여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일부 연구에서는 시민들의 참여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 수요에 대응함과 동시에 소득 향상을 추구하는 참여소득과 같은 새로운 복지전략을 제시하고 있을 만큼(김정훈·최석현 2018), 시민들의 거버넌스 참여는 중요한 지역사회 발전전략으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전형적인 시민의 사회참여 유형(투표와 집회/시위) 외에도 자치단체 활동 및 공동체 활동에서 확장된 시민들의 지방정부 혹은 지자체 정책 결정과 집행에 참여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거버넌스 유형으로 정의하고, 거버넌스적 사회참여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사회자본과 지역사회 참여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검토하고, 지역성의 개념과 사회참여와의 관계에 대한 사회심리학 이론과 실증 연구들을 더불어 검토하여 연구의 분석전략을 설정한다. 다음으로 각 사회참여 유형별로 사회관계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들의 영향을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서울연구원이 2017년 실시한 서울서베이 자료를 활용한다. 서울서베이자료는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20세 이상 시민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심리적 인식과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지역사회 참여에 관한 비교적 상

제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는 서울서베이 자료를 활용하여 서울 시민들의 지역사회 참여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관계적, 심리적 요인들을 분석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분석된 결과에 기반하여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에 필요한 미시적 조건에 관한 이론적, 정책적 방안에 대하여 논의한다.

II. 지역사회 참여 동인에 관한 선행연구

1. 지역사회 개념에 대한 선행연구

우리가 지역이라는 개념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지역에 대한 정의는 명확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지역은 공간적·장소적 의미의 지역(region)과 공동체 의미의 지역(local community)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사전적인 의미로 지역(region)은 일정하게 구획된 어느 범위의 토지 혹은 어떤 특징으로 나는 일정한 공간 영역으로 불릴 수 있다. 하지만 과거에 공간적 지역은 산과 하천 등 사람과 물자의 이동을 방해하는 자연물을 경계로 쉽게 구분 지을 수 있었지만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러한 전통적 의미의 지역적 경계는 무너지고 있어, 단순한 지역성을 강조하는 공간적 의미의 지역은 점차 그 의미가 퇴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른 측면에서 지역을 언급할 때는 지역공동체(local community)를 의미한다. 지역공동체는 특정 공간을 공유하는 구성원들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형성하는 집단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지역사회에 대한 전통적인 시각은 지역사회를 일정한 영역의 장소에서 정신적 공통사항을 바탕으로 혈연, 학연, 종교 등을 토대로 지역사회주민의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고 정치, 문화, 역사를 공유하는 사회라고 간주한다(Maclver 1932). 즉 지역공동체는 관습, 전통 등으로 구성된 지역성과 주민의식, 역할의식, 의존의식 등으로 구성된 지역사회의식이 수반된 공동생활권이 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전통사회에서는 대체적으로 공간적 지역과 지역공동체가 일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이동증가, 다원화 사회로의 변화로 인하여 지역사회주민의 생활양식 및 생활의식의 변화로 인하여 일정한 공간적 의미를 갖는 지역사회 뿐 아니라 공동의 소속감을 갖는 사람들이 지리적으로 초월해서 결성한 이익집단도 지역공동체로 인식

하는 경우도 생겨났다. 이런 맥락에서 지역사회를 지리적 지역사회와 기능적 지역사회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지리적 지역사회는 지리적 토대를 중심으로 물리적, 지리적 경계성으로 구분되어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지역집단을 의미하고 기능적 지역사회는 사회적, 문화적 동질성, 공통된 이해와 목적과 기능으로 구성된 집단을 의미한다(Ross 1967). 이러한 지역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을 종합하여 볼 때 지역사회는 일정한 공간 혹은 장소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상호관계를 맺고 생활하는 주민 집단(gemeinschaft)을 가리키는 지리적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지역에 대한 공통적 태도를 가진 사람들의 이익사회(gesellschaft) 모두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지역에 대한 정의가 모호함에 따라 지역 혹은 지역공동체의 범위 설정도 학자들에 따라 그 기준이 다르다.

일부 학자들은 지역공동체 범위를 설정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먼저 던햄(Dunham 1970)은 1) 인구크기, 2) 경제적 기반, 3) 정부의 행정구역, 4) 인구구성의 사회적 특성 등으로 지역공동체를 구분하였다. 또한, 워렌(Warren 1963)은 지역공동체를 1) 지역적 자치성, 2) 공공서비스 영역의 일치성, 3) 지역에 대한 심리적 동일시, 4) 지역내 조직간 상호관련성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이 같은 구분 방식은 지역이 가진 공간적 측면과 공동체적 측면, 혹은 지역성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을 함께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의 지역공동체 개념은 지역이 지리적, 행정구역상의 공간적 범주일 뿐만 아니라, 심리적 그리고 사회관계적 차원을 포괄하는 지역공동체로서 인식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2. 사회자본과 지역사회 참여에 관한 선행연구

사회자본(social capital) 개념은 시각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사회자본은 개인 혹은 집단간 관계를 일종의 가치 있는 자원으로 보며,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공유된 정체성 및 규범, 사회적 가치, 신뢰, 협동, 호혜성 등이 거론되고 있다. 가령, 콜만(Coleman 1988)은 신뢰, 호혜성, 관계, 사회적 규범에 의해 만들어진 사회적 연결망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사회자본이며, 사회자본은 개인과 집단적 행동을 촉발하는 기능을 한다고 보았다. 즉, 콜만은 사회자본 개념을 거래비용의 감소를 가져오는 '신뢰', 정보소통의 통로로서의 '연결망', 개인의 기회주의를 제어하는 '규범'으로 정의한 바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회자본 이론가인 퍼트남(Putnam 1993)은 사회자본을 '신뢰성'(trustworthiness)과 '호혜성의 규범'(the norm of reciprocity)을 내포한 '사회

연결망'이라고 정의내린 바 있다. 나아가, 그는 사회자본의 구성 요소 각각의 성격에 따라, 공공재를 생산하며 긍정적 기능을 하는 사회자본이 있는 반면, 집단 내부 구성원에게는 자본으로 기능하지만 전체 사회에 부정적 외부효과를 양산하는 사회자본을 구분한 바 있다. 그가 구분한 사회자본의 형태와 기능을 요약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사회자본의 유형

	긍정적 사회자본	부정적 사회자본
연결망 형태	약한 연대 개방적, 교량적 연결망	강한 연대 폐쇄적, 결속적 연결망
신뢰	일반적 신뢰/제도적 신뢰	제한적 신뢰
규범	일반화된 호혜성	특정적 호혜성
기능	공공재 생산	부정적 외부효과 양산

출처: 왕혜숙 외 2011, 50.

퍼트남에 따르면, 부정적인 형태의 사회자본은 구성원들을 수직적이고 위계적으로 결속시키는 연결망(bonding networks)의 특성을 보인다. 또한 친족 등의 1차집단과 같이 특정적이고 제한된 관계를 중심으로 강력하게 형성된 내집단 신뢰가 타인 일반은 물론 국가기구와 공적제도에 대한 신뢰의 발달을 저해한다. 반면, 긍정적인 사회자본은 개방적이고, 교량적 연결망(bridging network)의 형태를 띤다. 협소한 내집단을 넘어서 다양한 집단들을 넘나드는 약한 연대(weak ties)는 서로 다르지만 보완적인 자원들을 가진 사람들을 한데 모을 수 있는 이점을 갖는다(Granovetter 1973). 또한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연결망은 타인에 대한 "일반적 신뢰"의 발달을 촉진한다. 이러한 일반적 신뢰는 타인과의 협력을 용이하게 하며, 배타적 연결망을 넘어선 자발적 결사체에 대한 참여를 가능하게 한다. 참여 그 자체가 일반적 신뢰의 증거인 동시에 신뢰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자발적 결사체는 민주주의를 학습하는 학교인 셈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두 가지 형태의 사회자본에서 지역에 근거한 사회자본은 어디에 속할까? 당연히 지역 사회자본은 부정적 사회자본에 가까운 속성을 갖는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먼저 연결망을 중심으로 볼 때 결속형 사회자본은 혈연, 지역과 같은 비교적 동질적 배경을 가진 귀속적 집단에서 발생하는 사회자본인 반면, 연계형 사회자본은 볼링클럽이나 동호회와 같이 자발적 결사체에서 인종적, 경제적 배경이 다른 이들 간에 발생하는 사회자본이라고 할 수 있다(Putnam

1993). 또한 결속형 사회자본은 구성원들 사이의 가치와 규범의 공유를 통해 강한 연대를 형성한다. 이러한 공유된 가치와 규범은 지역 문화 안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강한 연결망은 사람들 간의 장기적이고 빈번한 접촉과 상호작용에 의하여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한된 공간 안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위의 <표 1>에 제시된 사회자본의 유형은 매우 이념형적인 구분에 불과하며, 사회자본이 형성되고 작동하는 맥락에 따라 서로 다른 효과를 가질 수 있다(왕혜숙 외 2011). 더불어 지역의 맥락을 고려한다면, 연결망, 신뢰, 규범이라는 세 가지의 구성요소 외에도 사회자본의 효과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소들이 존재할 수 있음을 많은 연구들은 지적하고 있다. 사회자본과 지역사회 참여와의 관계의 관한 연구를 진행한 퍼킨스와 롱(Perkins and Long 2002)은 지역주민의 사회자본의 구성요소로 공동체 소속감(sense of community)과 이웃간의 비공식적 상호부조(neighbouring), 집합적 효능감(collective efficacy)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공동체 소속감은 특정 집단 혹은 공동체와 기업과 역사, 이익, 관심을 공유하며 그 집단과 공동체 정서적 소속감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는 심리적 상태이며 사회자본의 구성요소 중 규범과 가치의 공유에 대응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웃 간의 비공식적 상호부조 행위는 지역사회 혹은 공동체에서 가장 기본적인 호혜성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집합적 효능감은 지역 공동체의 집합적 행동의 효과에 대한 믿음으로 사회자본의 구성요소 중 협력 요인에 대응한다고 할 수 있다. 퍼킨스와 롱(Perkins and Long 2002)은 이 세 가지 지역사회자본 요인들이 시민들의 사회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공동체 소속감은 규범의 공유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로 간주될 수 있으며, 개인의 이웃 간의 상호부조 동기를 높이고 집합적 효능감을 고취시켜 사회참여를 추동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지고 있다(Perkins and Long 2002; Prezza et al. 2001).

또한 퍼트남은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통합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결속형 사회자본과 더불어 연계형 사회자본의 기능이 중요하다고 보았다(Putnam 1993). 결속형 사회자본은 마을 안에서 공통적 배경을 가진 이웃 간의 신뢰와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데 기반이 되지만 이것이 곧 지역 문제 해결을 해결하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결속형 사회자본이 지역 주민들의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공통적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이들 간의 네트워크를 넘어서는 연계형 사회자본이 필요하다(Ferguson and Dickens 1999). 약한 연결망은 이웃의 범위를 넘어 형성된 네트

워크로서 이웃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거나 이웃의 문제 해결에 대한 지역 전체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민자 집단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에서 이웃들 간의 동질성으로 인하여 강한 연결망에 근거한 결합한 사회자본이 높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들이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확대 등을 요구하기 위한 효과적인 행동에 나서기 위해서는 마을 안에서 이민 집단의 범위를 넘어선 다른 이민집단 혹은 내국인과의 연계형 사회자본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울콕(Woolcock 1998)이 사회자본의 상향적 딜레마라고 일컫는 문제와 일맥상통한다. 즉, “역설적이게도 토착적인 사회 제도가 구성원들에게 재정적인 자원과 기타의 자원을 제공하는데 보다 성공적일수록 그러한 제도들은 점점 더 필요하지 않게 되며,” “빈곤한 공동체에서 발전이 진전되기 위해서는 공동체 내부의 집약적인 통합성이라는 최초의 유리함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공동체를 넘어선 확장적인 연계성 쪽으로 길을 터주어야”하기 때문이다.

퍼트남의 논의에서 시작된 강한 연대와 약한 연대 사이의 이항대립은 특히 한국사회에서 강한 연대의 대표적 집단이라 할 수 있는 혈연, 지연 등의 연고집단들이 비판받는 이론적 근거이기도 하다. 기존 연구들은 연고집단을 전근대적이고 파당적인 연줄망으로 규정하고 비판한다(이재열 1998, 2001; 이재혁 1998). 이 시각에서 파당적 연결망이 집단간의 배타적 신뢰를 바탕으로 집단 내부의 효율성을 높이는 반면, 공적인 이익을 침해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집합적 이해를 추구하면서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저해하기도 한다고 비판한다. 이 경우 이들의 사회자본은 공식적 제도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적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배타적이고 강한 연고집단의 내집단 신뢰가 집단을 넘어서는 일반적 타자(others in general)에 대한 보편적 신뢰는 물론 공적 제도에 대한 공적 신뢰의 형성을 막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발전 역시 지체된다.

그러나 출생/거주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지역 사회자본이 실제로 강한 연대라고 가정할 수 있을까? 기존 지역 사회자본에 대한 연구들은 지역을 사회적, 문화적 공통성과 동질성을 갖는 사회적 집단을 규정하곤 한다(정병은 2007; 이현우 외 2011). 즉, 동일한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들은 해당 지역에 대한 관심을 공유하며 지역민들과 교류를 통해 지역정체성과 결속, 집단적 가치와 이해를 확고하고 강화해나가면서 하나의 동질적 집단이 형성된다는 전형적인 사고이다.

반면 실제 최근 지역 사회자본과 관련된 연구들에서는 지역은 강한 연대의 근거라는 가정이 기계적으로 적용될 수 없음은 물론, 높아진 사회적 이동성으로 인해 변해가는 지역사회의 현실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이윤

복 2013; 김순은·권보경 2016). 많은 연구들이 지역 사회자본의 형성 요인으로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거주기간, 인종적 동일성 등을 지적하고 있다. 즉,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은 이웃들로 구성된 지역에서 사회자본의 강도가 높을 수 있다(Bandura 1997).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이들은 상호간에 가치가 높은 정보를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웃간 사회자본의 강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거주기간(Kasarda and Janowitz 1974; Sampson 1988), 주택의 소유 여부(Rohe and Stegman 1994; Sampson 1988), 인종적 동일성(Davis 2001) 등이 사회자본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지목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지역 사회자본의 형성에 있어서 같은 지역에 거주한다는 지리적 동질성이 반드시 동질적인 하나의 강한 연대의 토대가 되는 것은 아니며, 거주지역과 거주민들의 특성, 이들 간의 상호작용의 맥락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사회자본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을 함의한다. 즉, 동일한 지역 범위 안에서도 지역민들이 처한 경제, 사회, 문화적 맥락에 따라 결속형 사회자본과 연계형 사회자본 모두가 형성될 수 있다.

이 같은 논의들을 종합해 볼 때, 지역 사회자본은 각기 다양한 형태로 분리되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동일한 결속형 사회자본이라고 하더라도, 개인과 집단의 결속과 지역 공동의 이익을 위한 공동체적 전략을 도출하는 자원으로서 지역 사회 변화를 위한 사회참여를 추동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는 반면, 때로는 대도시지역의 이민집단과 같이 각기 다른 결속형 사회자본이 형성되어 지역 내의 공간적 분리와 함께 지역의 사회적 분절화를 촉진시키는 기능을 할 수도 있다. 더불어, 현대 사회에서 같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웃 간에 대면적 상호교류와 호혜적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공간적 한계는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 같은 지역에 거주하며 공동의 사회인프라를 이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호혜성을 구축할 수 있는 이웃 간의 네트워크는 지역에 기반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인종, 계층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구축되고 있어 지역 내에서 형성된 이웃 간의 사회자본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지역 사회자본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지는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지역 사회자본은 반드시 강한 연대의 결속형 사회자본이라는 전형적인 가정을 수정하고, 지역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회자본'들의 존재 및 성격에 대한 엄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마찬가지로 강한 연대는 부정적 사회자본이라는 전형적인 가정 역시 수정되어야 하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좋은 사회자본의 최대화 또는 나쁜 사회자본의 최소화가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사회자본의 '최적화'라 할 수 있다(Woolcock 1998).

3. 태도이론(attitude theory)과 지역사회 참여

사회자본의 관점에서 지역주민들 사이의 연결망과 신뢰, 이들이 공유하는 규범과 같은 요소들이 지역활동 참여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밝히는 연구들을 앞서 살펴보았다. 이들 연구는 대부분 지역참여를 유도하는 동인을 구체적인 지역주민들 사이의 대면적 관계나 물리적 장소성과의 직접적 접촉을 통해 생성되는 것으로 전제하는 경향을 갖는다. 즉, 사회자본 관점은 지역사회 참여의 동인을 특정 집단과 교류함으로써 또는 특정 지역에 소속, 거주함으로써 체득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을 갖는다. 그러나 지역참여의 동인을 이렇게 정의할 경우, 향수나 지역주의와 같이 물리적 장소나 특정 집단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단절되었거나 전혀 없음에도 지속되는 지역에 대한 태도나 가치를 포괄할 수 없다.

지역주의는 지역에 대한 의식, 인식 또는 감정 등이 체계적으로 조직화된 하나의 신념체계이자, 지역을 중심으로 집합적 의식의 형태를 지향하는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간주되어 왔다(최영진 1997: 정병은 2007에서 재인용). 지역주의가 성립하려면 먼저 '지역'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땅, 행정지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방식이나 신념, 가치관, 문화 등을 간직하는 생활세계를 의미한다. 이는 지역사회 참여를 이끄는 동인으로서 사회자본에서 강조해왔던 실질적인 연결망이나 구체적인 대상에 대한 신뢰와 같이 사회관계적 측면뿐만 아니라, 개인의 지역에 대한 심리적이고 인지적인 감정동학을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듯, 시민들의 사회 참여와 관련된 심리적 혹은 인지적 동인에 관한 연구들이 최근 활발해지고 있다. 이 연구들은 시민들이 현재 장소에 대한 정서적 유대가 강할 때 지역사회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Jorgensen and Stedman 2001; Manzo and Perskins 2006, 306). 다시 말해, 시민들이 거주하거나 거주했던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있을 때 지역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 연구들은 개인이 특정 지역에 대해 가지는 인지적, 심리적 태도를 더욱 세분화하여 구분하고, 지역에 대한 태도가 지역사회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줌을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요르겐센과 스테드만(Jorgensen and Stedman 2001)은 개인이 거주 지역에 대하여 가지는 심리학적 태도를 정서적 요인으로 장소애착심(place attachment), 인지적 측면으로 장소정체성(place identity), 행위적 측면으로 장소 의존성(place dependence)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장소애착심'은 장소에 대한 감성적 유대성을 의미하며(Lewicka 2011, 219), '장소정체성'은 물리적

장소를 개인의 정체성과 연결하는 것을 의미하며(Trentelman 2009, 200), '장소의 존성'은 개인이 다른 장소와 비교하여 특정 장소에서 얻을 수 있는 서비스와 환경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의미한다(Stedman 2002).¹⁾

이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 장소애착심은 개인의 특정 지역에 대한 감정적 유대감을 의미하여, 장소애착심을 가진 이들은 그 장소와 관련된 사람들, 산출물 등에 대하여 다른 것보다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령, 타향에서 같은 고향 출신인들에 대한 감정적 유대감을 가지는 것과 고향에서 산출된 농산물의 구입을 선호하는 현상을 모두 특정 지역에 대한 장소애착심을 보여주는 대표적 심리적 태도라고 할 수 있다(Lewicka 2011).

더 나아가, 일부 연구에서는 장소애착심을 보다 복합적인 시민들의 정서적 상태로 정의하며, 개인이 특정 장소의 환경, 소리, 냄새 등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감각적 경험들이 장소애착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심지어 직접 그 장소에 가보지 않고 이야기로만으로 특정 지역에 대한 장소애착심을 가질 수 있다고 보았다(Tuan 1977, 159). 예를 들어, 우리가 문학 작품이나 영화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경험한 특정 장소를 방문하기를 원하는 것도 장소애착심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장소정체성은 특정 장소가 개인의 정체성의 일부를 형성하는 심리적 현상을 의미한다. 장소정체성은 일견 장소애착심과 유사한 개념으로 보일 수 있으나 장소정체성은 특정 장소를 통하여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보다 적극적인 장소에 대한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의 출신 고향을 밝히거나 거주 지역을 밝힘으로써 자신의 성격 혹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장소정체성의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장소의존성은 지역 환경에 대한 만족감이라고 할 수 있다. 장소의존성은 특정 장소를 다른 장소와 비교하여 장소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 특정 장소에서의 치안서비스와 교육서비스 등의 거주환경에 대한 상대적 만족감이 장소의존성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Stedman 2002).

사회심리학 분야에서 제시된 장소애착심, 장소정체성 그리고 장소의존성은 모두 개인이 특정 장소에 대해 가지는 심리적 태도로 개인 혹은 집단 간의 관계에 기반을 둔 사회자본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일부에서는 장소애착심과 장소정체성이 특정 물리적 장소에 대한 심리적 태도이기도 하지만

1) 요르겐센과 스테드만은 장소애착심과 장소정체성이 강할 때 이웃과의 공동체 의식 및 호혜성 등이 강화되며 결과적으로 지역사회 참여로 이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Jorgensen and Stedman 2001).

특정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들, 즉 공동체에 대한 심리적 태도로도 볼 수 있어 공동체 소속감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Jorgensen and Stedman 2001).

더 나아가, 장소 혹은 지역에 대한 태도가 지역사회에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도 제시되고 있다. 예를 들어, 만조와 퍼킨스(Manzo and Perkins 2006)은 개인이 장소에 대한 감정적 유대감을 가질 때 집합행동이 보다 잘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요르겐센과 스테드만(Jorgensen and Stedman 2001)은 장소에 대한 심리적 태도와 사회자본 그리고 사회참여와의 관계를 고찰하면서, 장소에 대한 세 가지 심리적 태도 중 장소애착심과 장소정체성은 개인의 지역사회자본과 긍정적 관계를 맺으며 사회참여를 추동한다고 주장하였다.

관계에 초점을 맞춘 기존 사회자본 논의와 달리 장소성, 즉, 시민들의 장소에 대한 심리적 태도에 대한 사회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는 거주 장소에 대한 개인의 심리와 그러한 심리를 공유하는 사람들 간의 연대를 추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장소애착심과 장소정체성은 지역 주민들 간의 가치적 연대에 기반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사회적 참여를 추동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자신의 출신/거주지역에 대한 애착은 직접적인 대면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민들과의 사적 연결망을 통해 생성되는 지역에 대한 유대와는 질적으로 다른 성질을 갖는다. 여기서 퍼트남에 대한 비판적 해석이 가능하다. 퍼트남은 토크빌의 전통을 따라 직접적인 대면관계나 실질적인 참여가 신뢰와 호혜성의 규범을 낳는다는 인과관계를 설정한 바 있다. 퍼트남은 현대사회의 다양한 자발적 결사체 가운데에서 전국적 조직의 시민단체나 NGO와 같은 유형의 참여는 단순히 연회비를 납부하고 그에 대한 보답으로 혜택이나 서비스나 상징적인 귀속감만을 얻을 뿐, 실질적으로 사회적 연계성에 기반한 사회자본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수 없다는 비판적 견해를 갖는다.

그러나 뉴튼(Newton 1997)은 시민단체나 NGO 등의 자발적 견사에 대한 참여는 추상적 신뢰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²⁾ 추상적 신뢰가 오히려 현대의 대의민주주의에 필요한 형태임을 강조한다. 이렇게 볼 때 태도이론에서 강조하는 지역

2) 뉴튼에 따르면 추상적 신뢰는 전인격적 차원의 두터운 신뢰 그리고 비인격적 차원의 얇은 신뢰와 차별화되는, 상상적, 공감적, 성찰적 공동체에 대한 추상적 신뢰를 제시한다(Newton 1997). 국가나 민족, 또는 EU와 같은 조직에 대한 신뢰가 추상적 신뢰의 예들이다.

에 대한 신뢰, 애착, 소속, 정체성은 개인이 알고 있는 특정 지역주민, 이웃들에 대한 대인 사적 신뢰(personal trust)가 아니라 장소성, 지역성(locality)에 대한 일종의 추상적 신뢰라 할 수 있다. 이는 지역주의, 지역연고를 반드시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요소가 아닌 지역발전을 위한 자발적 참여를 추동하는 사회자본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는 논점을 제공한다. 따라서 강한 연대와 약한 연대의 대립 구도로 지역주의를 접근하는 사회자본 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 연구는 지역에 대한 다양한 인지적, 심리적 태도가 개인들의 지역사회 참여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변수로 상정하고자 한다.

Ⅲ. 분석틀 및 분석방법

1. 분석틀 및 분석 대상

본 연구에서는 시민들의 지역사회 참여에 관한 미시적 요인들을 탐색하기 위하여 사회자본 이론과 태도이론에서 제시된 요인들을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사회자본에서 제시된 신뢰와 공동체 소속감을 사회자본을 대표하는 지표로 설정함과 동시에 태도이론에서 제시된 장소정체성, 장소애착심, 장소의존성을 분석모형의 핵심 설명변수로 설정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신뢰는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 요인으로, 집합행동의 장애물로 여겨지는 무임승차(free rider) 문제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켜 개인의 참여 동기를 강화시킨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퍼트남이 강조했듯이 신뢰의 대상과 범위에 따라 전혀 다른 성격의 사회자본이 형성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뢰를 이웃에 대한 '사적 신뢰'와 공공기관에 대한 '공적 신뢰'로 나누어 신뢰의 질적인 차원을 차별적으로 측정하여 측정해볼 것이다. 또한 사회자본의 또 다른 구성요소로 공통된 규범의 존재를 보여주는 대리지표로 '공동체 소속감'을 측정할 것이다. 특히 지역적 맥락에서 지역 사회자본의 핵심 요소로 공동체 소속감은 지역 내에서 공유된 가치와 규범을 제시하며 이웃과의 협동과 집합적 효능감을 높이는 기능을 통하여 사회참여를 추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Perkins and Long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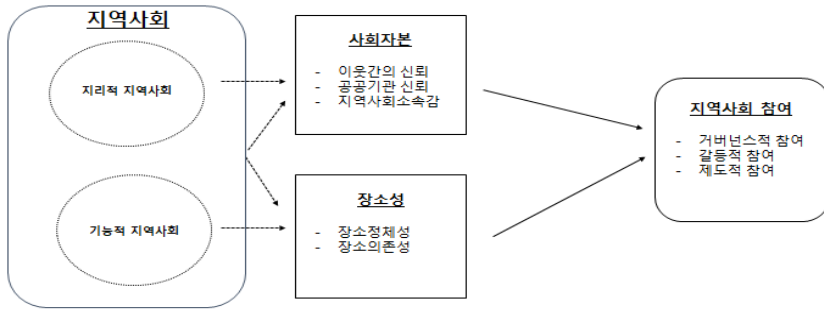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장소에 관한 태도이론에서 제시된 세 가지 장소성 개념 가운데 두 가지 개념(장소정체성, 장소의존성)을 분석모형에 포함하였다. 제외된

장소성 개념인 장소애착임은 장소정체성과 중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실제 거주 지역에 대한 두 태도 변인은 상호관련성이 높은 측면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모델에서는 두 변인 중 하나의 변인만을 대표적으로 모형에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시민들의 사회관계적, 심리적 요인이 지역사회 참여 유형별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비교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채택한 지역사회 참여 유형은 제도적 참여 유형, 갈등적 참여 유형, 거버넌스적(협력적) 참여 유형이다. 먼저 제도적 참여 유형은 현재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일반적인 참여 유형으로 시민들이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하여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에 참여하는 유형이다(정한울·이근수 2013). 갈등적 참여 유형은 제도적 참여가 지역사회의 이익과 변화에 대한 요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 하에서 이뤄지는 집회와 시위와 같은 집단행동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거버넌스적 참여 유형은 최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강조되는 참여 유형으로 시민들이 지방정부와 함께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데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거버넌스적 참여 유형은 지방정부의 정책에 시민들의 의견을 정책 계획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반영함과 동시에 정책 및 사업 실행에 참여함으로써 정책의 성과를 높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가 제시한 분석틀은 다음 그림과 같다. 우리는 이와 같은 세 가지 참여 유형에 각기 시민의 관계적, 심리적 요인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비교·탐색함으로써 지역사회 지속가능한 발전과 변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에 필요한 지역 사회자본 모델을 구축하고자 한다. 아래 그림과 같이 우리는 지역사회 개념을 Ross(1967)가 제시한 지리적 지역사회와 기능적 지역사회가 결합한 개념으로 상정한다. 지리적 지역사회는 제한된 지리적 공간 안에서 주민들의 상호관계를 맺는 집단을 의미하며, 기능적 지역사회는 장소에 기반을 둔 공통의 생활양식, 가치, 그리고 이해 등 무형적인 사람들의 공통적인 인식을 가진 집단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두 하위 지역사회가 각각 사회자본과 장소성의 기반의 될 수 있다고 가정했으나 이 부분은 본 연구의 연구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기에 향후 연구에서 그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본 연구가 초점을 맞춘 사회자본과 장소성은 각각 세 종류의 지역사회 참여 유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했다. 우리는 분석틀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사회자본과 장소성을 구성하는 각 요인들이 세 종류의 지역사회 참여와 어떠한 관계를 맺는가를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그림 1〉 분석틀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설정한 지역은 서울지역이다. 서울지역은 한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한 도시인 동시에 1394년 조선왕조의 수도가 된 이후 역사적, 문화적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함에 있어서 지역, 혹은 지역공동체의 범위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러한 한계는 서울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 특수성, 지역공동체의 다양한 특성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특성에서 기원한다고 할 수 있다.

서울 지역은 2015년 현재 서울인구 중 서울 태생은 47.9%로 약 절반 이상이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서울로 이주해 온 사람들로 인구가 구성되어 있어 다른 광역자치체에 비하여 타 지역 출신 인구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변미리 외 2017). 서울 인구는 교육, 일자리, 그리고 주거비용을 이유로 서울시 내에서의 인구가동 또한 다른 광역시도에 비하여 높은 편이다(변미리 외 2017). 또한 서울은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하여 25개 자치구가 경제적 측면에서 상당히 기능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점도 서울지역의 지역공동체의 특수성을 강화시키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은 행정적으로 25개 기초자치체로 분리되어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주거밀집지역, 업무지역, 상업지역 등으로 각 자치구가 특성화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민들은 일상생활에서도 가족생활, 소비활동, 소득활동이 서울시 안에서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을 가능성이 다른 시도에 비하여 높다. 또한 공공서비스의 제공 측면에서도 특별시로서의 지위로 인하여 다른 지역에 비하여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이 두드러져 비교적 통합적이고 균질적인 공공서비스가 모든 자치구에 제공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즉, 서울은 그 어떤 지역보다 높은 이질성, 다양성, 이동성으로 인해 지역민들 사이의 사회자본은 물론 지역에 대한 애착이 형성되기 어려운 지역이라 할 수 있다. 그만큼 지역민들 사이의 자발적인 협력과 지역사회 참여활동 역시 활성화 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는 오히려 연구주제를 고려한다면 일종의 강점이 될 수 있다. 이렇듯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내부적으로 분절된 서울 지역에서 그나마 지역민들이 이웃주민들과 교류, 연대하며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요인은 무엇이며, 이들 서울 지역민들이 형성하게 되는 사회자본과 장소성은 전통사회의 그것들과는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이들의 지역사회 참여를 향후 어떻게 더욱 촉진할 것인가는 정책적으로 중요한 함의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서울의 특수성과 예외성을 고려하여 분석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해석할 계획이다.

2. 변수와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제시된 연구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하여 서울연구원에서 2017년 실시한 서울서베이자료를 활용하였다. 서울서베이는 서울연구원이 학술과 정책개발 목적으로 격년단위로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도를 측정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설문조사이다. 이 중 2017년 서베이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2만 가구의 15세 이상 가구원 42,687천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³⁾ 서울서베이의 구체적인 조사항목은 인구나 가구 현황, 경제, 주거와 생활, 교육과 보육, 건강과 보건, 안전과 재난, 환경, 교통, 문화와 여가, 거버넌스, 복지, 가치와 의식 등 12개 분야별 지표와 관련된 것들이다. 우리는 이 중에서 실제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20세 이상의 시민들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조사 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첨부 1>에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의 분석에 포함된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시하면, 평균연령은 49.2세이며, 남성은 분석대상의 47.6%이며, 여성은 52.4%를 차지하였다. 또한 학력분포로는 대학교 졸업이 전체 분석대상의 37.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고등학교 졸업이 32.5%로 뒤를 이었다. 직업 분포는 남성에서는 사무직원이 29.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여성에서는 주부가 45.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사대상 인원의 평균 서울 거주기간은 33.2년이었으며, 현재의 집 평균 거주기간

3) 2017년 서울서베이 자료는 서울 주민등록 가구를 모집단으로 하여 자치구, 행정동, 주택유형을 3개 층으로 한 층화추출을 샘플을 구성하였다.

은 8.9년이였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서베이에서 제시된 설문문항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종속변수와 핵심 설명변수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시민들의 지역사회 참여 유형이다. 서울서베이는 사회참여 유형을 일곱 가지로 구분하여 참여여부를 묻고 있다.⁴⁾ 이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마을만들기, 공유도시 등 서울시 정책관련 사업, 정책 제안을 거버넌스적 참여 유형으로, 시위와 집회 참여를 갈등적 참여 유형으로, 마지막으로 투표를 제도적 참여 유형으로 매칭시켜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첫 번째 독립변수인 사회자본은 다음의 세 가지 설문문항을 통해 측정하였다. 먼저 “사적 신뢰”와 “공적 신뢰”를 측정하기 위해 이웃에 대한 신뢰 변수를 묻는 항목과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변수로 “당신은 이웃(공공기관)에 대하여 얼마나 신뢰하십니까?”라는 설문문항에 대한 5점 척도(전혀 신뢰안함-매우 신뢰)의 응답 결과를 사용하였다. 또한 지역공동체의 이해와 규범의 공유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공동체 소속감”을 묻는 질문인 “당신은 지역사회의 일원이라는 느낌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라는 설문문항에 대한 10점 척도(전혀 만족하지 않음-매우 만족)의 응답 결과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두 번째 독립변수인 지역에 대한 심리적 태도는 다음의 두 가지 설문문항을 통해 측정하였다. 먼저 장소애착심을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설문문항이 서울서베이에서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 다만 선행연구에서 장소정체성과 장소애착심이 장소성(sense of place)이라는 개념으로 포괄된다는 점에서 (Jorgensen and Stedman 2001), 장소정체성을 묻는 설문문항인 “당신은 서울시민이라는 데 얼마나 자부심을 느끼시는지요?”에 대한 10점 척도의 응답 결과를 변수로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장소의존성 변수는 “귀하께서 살고 계신 지역의 생활환경에 대해서는 얼마나 만족하십니까?”에 대한 설문문항에 대한 10점 척도 응답 결과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제시된 설문결과들을 더미변수로 재코딩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서울서베이 자료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앞에서 제시한 설문문항에 포함된 지역과 지역사회의 범위가 다소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특히, 장소정체성으로 사용된 설문문항은 다른 사회자본과 장소의존성 변

4) 서울서베이는 사회참여 유형을 ① 단순 문의, ② 민원 제안 및 제기, ③ 정치사회적 의견 달기, ④ 마을만들기, 공유도시 등 서울시 정책관련 사업, ⑤ 정책 제안, ⑥ 집회/시위 참가, ⑦ 투표로 나누어 참여여부를 묻고 있다. 분석에는 비교적 소극적 참여 유형이라 할 수 있는 ①, ②, ③의 참여형태를 제외하였다.

수로 사용된 설문문항에 비하여 비교적 큰 지역 범위를 상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서울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장소정체성으로 설정함에 있어 로스(Ross 1967)가 제시한 지역사회의 두 가지 측면, 즉, 지리적 지역사회와 기능적 지역사회 중에서 기능적 지역사회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장소정체성 변수와 지역사회 참여 간의 관계를 해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독립변수로 채택한 변수로는 거주형태이다. 시민들의 거주유형은 시민들의 지역간 이동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임과 동시에 지역사회에서 이웃과의 네트워크 형성과 그 강도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시민들의 거주 유형을 주택 점유 유형과 주택형태로 구분하여 변수로 구성하였다. 이 외에도 성, 연령, 혼인 상태, 수입, 학력, 소득, 직업지위, 현 지역 거주기간을 통제변수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채택한 종속변수와 중요 독립변수, 그리고 통제변수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마을사회자본 분석을 위하여 채택한 분석 방법은 로짓회귀분석(logit regression model)이다. 채택된 종속변수는 이항변수(dummy variable)인 지역사회참여 여부이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로짓분석은 확률모델로서 일반 회귀분석과 동일하게 종속변수와 독립변수간의 관계를 함수로 예측하는 데 사용하는 분석방법이다. 다만, 일반 회귀분석과 다르게 종속변수가 이항 범주형 변수이며, 종속변수의 특성으로 이항분포의 특성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로짓분석의 특성이 각 사회참여 유형과 시민들의 관계적, 심리적 요인들의 관계를 예측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의 분석방법으로 채택하였다.

<표 2> 분석 변수 설명 및 코딩

구분	변수명	비고
종속변수	거버넌스적 사회참여 경험(지지체 사업 참여)	0=없음, 1=있음
	갈등적 사회참여 경험(집회/시위)	0=없음, 1=있음
	제도적 사회참여 경험(투표)	0=없음, 1=있음
설명변수	이웃 간의 신뢰	0=없음, 1=있음
	공공기관 신뢰	0=없음, 1=있음
	지역사회 소속감	0=없음, 1=있음
	장소정체성	0=없음, 1=있음
	장소의존성	0=없음, 1=있음

구분	변수명	비고
통제변수	성	0=여성, 1=남성
	연령	연속변수
	혼인상태	1.기혼, 2.미혼, 3.이혼, 4.별거, 5.사별, 6.동거
	학력	1=중졸이하, 2=고졸, 3=전문대졸이상
	거주형태	1=단독, 2=아파트, 3=다세대 4=연립/빌라, 4=기타
	거주점유형태	1=자가, 2=전세, 3=월세(보증금유), 4=월세(보증금무)/사글세, 5=무상
	직업	1=무직, 2=학생, 3=주부, 4=관리자/전문가, 5=사무직, 6=판매/서비스, 7=기술직, 8=농업, 9=저기술직
	소득	1=중위50%이하, 2=50-150%, 3=150%이상
	지역거주기간	로그화된 연속변수

IV.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시민들의 지역사회 참여 유형을 제도적 참여, 갈등적 참여, 거버넌스 참여로 구분하고, 각 지역사회 참여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사회자본의 측면과 심리적 측면에 탐색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 문제하에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먼저, 사회자본 변수는 지역사회 참여 유형에 따라 차별적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이웃에 대한 신뢰, 즉 사적 신뢰는 시민들의 지역 거버넌스 참여와 갈등적 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제도적 참여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즉 공적 신뢰는 거버넌스적 참여와 갈등적 참여와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반면, 제도적 참여와는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적 신뢰는 제도적 참여, 즉 선거참여에는 긍정적 동인이 될 수 있으나, 갈등적 참여와 거버넌스적 참여 모델에서는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이

시민들의 참여를 추동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결과를 종합해보면, 기존 연구들이 주장해온 사적 신뢰와 공적 신뢰가 서로 다른 효과를 가진다는 점은 본 분석에서도 확인되었다. 그러나 분석 결과는 사적 신뢰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하는 반면, 공적 신뢰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촉진한다는 전형적인 해석보다는, 두 형태의 신뢰가 서로 다른 참여유형을 촉진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이웃에 대한 사적 신뢰가 높을수록 선거라는 제도적 채널을 통한 의견표명이나 참여보다 비제도적 형태인 시외나 집회와 같은 활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역으로 공적 신뢰가 높을수록 선거와 같은 제도적 채널을 통해 의견을 표출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지역사회 참여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결과

	거버넌스적 참여		갈등적 참여		제도적 참여	
	Coef.	Std. Err.	Coef.	Std. Err.	Coef.	Std. Err.
이웃신뢰	0.344***	0.040	0.246***	0.040	-0.072	0.041
공공기관신뢰	-1.070***	0.048	-0.311***	0.042	0.655***	0.046
지역사회소속감	0.041	0.053	-0.198***	0.050	-0.018	0.051
지역정체성	1.282***	0.079	0.157**	0.054	-0.238***	0.055
지역의존성	-0.059	0.056	-0.086	0.054	0.166**	0.053
연령	-0.025*	0.011	0.003	0.012	0.001	0.011
연령제곱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주거형태 (준거=단독주택)						
아파트	-0.092*	0.042	0.004	0.042	0.022	0.042
다세대주택	-0.272***	0.064	-0.042	0.061	0.218***	0.062
연립/빌라	0.079	0.061	-0.027	0.062	0.114	0.063
기타	0.327	0.258	-0.770*	0.373	-0.198	0.243
주거점유형태 (준거=자가)						
전세	-0.113**	0.042	-0.070	0.041	-0.021	0.042
보증금월세	-0.083	0.068	0.011	0.064	-0.242***	0.061
무보증금월세/사글세	0.421	0.310	0.643*	0.282	-0.898***	0.261

	거버넌스적 참여		갈등적 참여		제도적 참여	
무상	-0.721	0.747	0.241	0.510	-0.078	0.556
학력 (준거=중졸이하)						
고졸	-0.208*	0.089	0.507***	0.125	0.258**	0.088
전문대졸이상	-0.171	0.098	1.029***	0.131	0.286**	0.097
혼인상태 (준거=기혼)						
미혼	-0.107	0.059	-0.060	0.054	-0.209***	0.056
이혼	-0.211*	0.089	-0.124	0.090	-0.350***	0.075
별거	-0.052	0.101	0.088	0.114	-0.085	0.100
동거	-0.680	1.054	-1.017	1.039	-2.868***	0.655
직업 (준거=무직)						
관리자/전문직	-0.125	0.108	-0.138	0.113	0.415***	0.109
사무직	-0.096	0.096	-0.291**	0.104	0.311***	0.094
서비스/판매직	-0.140	0.087	-0.432***	0.097	0.137	0.085
기술직	0.030	0.096	-0.132	0.106	0.219*	0.096
농어업	0.639	0.539	0.211	0.577	-	-
임금소득 (준거=저소득층)						
중위소득(중산층)	-0.059	0.103	-0.053	0.113	-0.043	0.102
중위소득이상 (상류층)	-0.030	0.108	-0.160	0.117	0.031	0.107
지역거주기간(로그)	0.148***	0.037	0.111***	0.034	0.099**	0.032
상수	-2.123***	0.319	-2.086***	0.319	0.692*	0.302
Pseudo R2	0.048		0.027		0.026	
로그우도	1037.949		593.597		555.222	
로그우도비 검증	0.000		0.000		0.000	
케이스수	25,107		25,107		25,087	

* p<0.05, ** p<0.01, *** p<0.001

자료 데이터: 서울서베이 2017.

즉, 지역사회에서 이웃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신뢰감과 소속감을 가지고 있을수록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마을 만들기, 도시재생과 같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추론할 수 있다. 하지만 현대 민주사회에서 시민들의 가장 제도화된 참여 유형인 선거참여, 즉 제도적 참여에서는 시민들의 사회자본적 요인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사회자본과 관련된 흥미로운 점은 시위와 집회에 같은 갈등적 참여 분석 결과에서 발견되었다. 다시 말해 제도적으로 시민들의 요구가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나 그러한 참여 통로가 유효하게 작동하지 않을 때 취하는 참여 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이웃 간의 신뢰 변수이며,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은 갈등적 참여와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지역내 주민들의 비선호 시설의 설치 반대, 보육과 교육, 그리고 생활환경에 대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혹은 지역사회 개발을 촉구하는 지역민들의 집합 행동에서 시민의 이웃에 대한 신뢰는 동인이 되지만 지역사회 소속감은 반대로 이러한 갈등적 집단행동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지역의 정치활동의 맥락에서 본다면, 각기 다른 유형의 신뢰에 기반한 사회자본은 지역민들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하게 되는 다양한 정치참여의 단계에 차별화된 유인 요소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장소와 관련된 심리학적 태도 변인들이 각 지역사회참여 유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도록 하자. 먼저 지역에 대한 자부심, 즉 지역정체성은 거버넌스적 참여와 갈등적 참여 유형과는 정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제도적 참여와는 부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민으로서의 자부심, 즉 지역정체성이 사람들간의 상호작용에 기반한 것이 아닌 서울이라는 장소에 기반을 둔 공동의 생활양식과 가치, 그리고 공동의 이해와 연관된 기능적 지역사회 관련 변수라는 점에서 주민들의 의견교환이나 토론이 아닌 무형적인 공동 생활양식과 일상생활 경험에서 비롯되는 지역적인 문제에 대한 공통적 지각이 거버넌스 참여와 갈등적 참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 하나의 변수인 지역 환경에 대한 만족감, 즉 지역의존성은 반대로 제도적 참여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거버넌스적 참여와 갈등적 참여와는 부적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 거주 환경에 대한 불만족은 환경 개선을 위한 지방정부 사업 참여와 집회와 시위 참여 등을 추동할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시민들의 이웃에 대한 신뢰는 제도적 참여보다는 갈등적 참여와 거버넌스적 참여를 추동하는 원인으로 분석되었으나, 반대로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는 시민들의 제도적 참여를 추동하는 원인으로 판단된다. 이 같은 결과들은 기존의 시민들의 정치참여에 관한 선행연구들에 기반하여 이해될 수 있다. 정치참여에 관한 여러 연구들은 시민들의 선거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학적 요인으로 정치적 효능감(Political efficacy)를 지목하고 있다. 시민들에게 선거에 참여하기 위하여 투표장에 나가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일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있어 선거참여로 인하여 실제 정책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심리적 확신이 전제되어야 한다(최석현·윤상진 2016). 즉, 이런 점에서 지방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감이 있어야만 투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감내하겠다는 시민들의 합리적 결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이 투표와 같은 제도적 참여보다는 공동체 참여와 집회와 시위 같은 비제도적, 항의적 사회참여를 불러온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Dalton 1996).

위의 분석결과 가운데, 본 연구의 핵심 독립변수인 사회자본 변수와 지역태도 변수의 영향력만을 정리해보면 아래 <표 4>와 같다. 흥미로운 것은 지역사회 소속감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이 갈등적 참여와 거버넌스적 참여에 동일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즉, 지역 특수적 감정에 기반하여 일상적이고 연대적인 참여를 추구하는 이들은 제도적 참여보다는 거버넌스적 참여 갈등적 참여에 적극적일 가능성이 많으며, 그렇지 않은 이들은 제도적 참여에 보다 적극적일 가능성이 높다.

<표 4> 사회자본 변수-태도 변수와 참여 유형의 비교

	거버넌스적 참여	갈등적 참여	제도적 참여
이웃신뢰	+	+	-
공공기관신뢰	-	-	+
지역사회소속감	+	-	-
지역정체성	+	+	-
지역의존성	-	-	+

* 음영처리된 부분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성이 검증됨.

추가적으로, 본 연구의 연구 목적과 직접적인 연관도는 낮지만, 본 연구의 분

석결과는 투표참여, 즉 제도적 참여 모델은 개인의 소득, 학력, 그리고 가족 형태가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제도적 참여에서는 이러한 사회경제적 배경 요인의 상당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 점도 사회 참여의 보편성과 배제의 측면에서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 즉, 제도적 참여 모델에서는 직업지위가 높을수록, 소득수준과 학력이 높을수록, 기혼자일수록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점은 제도적으로 보장된 사회참여의 기회를 저소득층과 1인 가족 등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서는 일반적인 사회적 수준에 비하여 충분히 누리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반면, 거버넌스적 참여 모델에서는 시민들의 사회경제적 배경, 특히 학력과 직업지위 등이 참여에 미치는 경향성이 상대적으로 고소득층과 고학력자에 치우치지 않은 점은 시민들의 지역사회 보편적 참여 보장이라는 점에서 거버넌스적 참여가 지역사회에서 계층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제도적 참여를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이 갈등적 참여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도 추가적인 분석과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다만, 여기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사회자본의 호혜성과 규범의 측면에서 이웃에 대한 신뢰는 다소 공간적으로 제한적인 범위를 가지고 있지만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은 이웃에 대한 신뢰보다 공간적으로 확장된 호혜성과 규범의 범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웃에 대한 신뢰는 일반적으로 일상적인 대면 접촉과 교류에 의하여 형성되는 측면이 있는 반면, 지역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은 직접적인 교류와 대면접촉 보다는 지역 공동체를 뒷받침하고 있는 규범과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가지는 호혜성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웃 간의 신뢰보다는 시민들의 직접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동인으로서의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오히려 갈등적 참여와 같은 지역사회 내의 이해의 충돌이나 갈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장소성과 관련된 변수들 중 장소정체성이 거버넌스적 사회참여와 갈등적 사회참여와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점은 시민들의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애착이 지역사회 소속감보다 더 강력한 사회참여 동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 장소의존성, 즉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만족감이 거버넌스적 사회참여와 갈등적 사회참여와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지 않는다는 결과는 기존 사회심리학 연구들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V. 결 론

퍼트남(Putnam 1993)이 지적했듯이, 현대사회에서 산업화, 도시화는 개인 간의 사회적 접촉 및 상호교류가 쉽지 않게 만들었다. 더 나아가, 지역 내에서도 직업의 다양화와 거주 형태의 다양화로 인한 공간의 분리로 인하여 개인과 집단 간, 심지어는 가족 내에서도 정보교류 및 상호 지원도 과거와 같은 모습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지역사회 내에서도 동일한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결합한 사회자본을 확장하여 공통의 규범과 가치에 기반을 둔 연계형 사회자본을 구축하는 것이 쉽지 않게 되었다(Putnam 1993). 특히, 서울과 같은 대도시 지역은 대체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주거 생활 영역을 넘어서는 노동과 소비 영역을 가지고 있어 지역 공간의 범위가 전통적인 관념의 지역을 넘어서고 있다. 이런 점에서 지역 사회자본의 형성과 그것의 기능, 그리고 사회자본의 효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개인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지역 공간이 확장되면 역설적으로 지역 내 특정 개인과 집단의 결속형 사회자본의 폐쇄성이 더욱 강해질 수 있어 지역에 대한 참여의 통로가 파편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장과 거주지역의 분리, 즉 직주분리가 심화됨에 따라 어떤 이는 생활공간과 근로 공간 어디에서도 결속형 사회자본을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반면, 지역 내에서 직주근접성을 가진 다른 이들은 지역 내에서 결속형 사회자본에 근거하여 지역사회 참여를 통하여 배타적으로 개인 혹은 집단의 이익을 관철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 사회자본의 효용성은 결속형 사회자본의 폐쇄성을 넘어 지역 사회 참여의 보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본 연구에서 그동안 사회자본 이론가들의 관심의 밖에 있었던, 장소성과 같은 주민들의 장소에 대한 심리적 태도에 주목하였다.

분석결과, 본 연구가 상정한 지역사회 참여 유형들 중, 거버넌스적 참여, 갈등적 참여에는 이웃 간의 신뢰와 같은 이웃과의 관계적 특성과 지역정체성은 공히 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는 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지자체에 등의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 이웃 간의 신뢰와 같은 사회자본적 요소 그리고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지역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과 같은 지역에 대한 심리적 태도 등이 시민들의 지역 거버넌스 참여 및 집회와 시위와 같은 갈등적 사회참여를 추동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사회자본 개념을 구성하는 요인

중 하나인 지역공동체 소속감은 갈등적 사회참여와는 통계적으로 부적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 점은 개인이 지역사회와 유리되거나 배제되었다는 상대적 소외감과 박탈감을 가지면 항의와 집회와 같은 참여에 나서게 된다는 기존의 사회심리학적 시각(임희섭 1999)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반면, 지역사회 참여의 가장 일반적으로 제도적 형태인 투표를 통한 선거 참여에는 사회자본 변수로 제시된 이웃 간의 신뢰, 지역 공동체 소속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반면에 장소정체성과는 부적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석결과는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및 지역의존성(지역 거주 환경에 대한 만족)이 선거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종합하면, 지역주민들의 갈등적 참여와 거버넌스적 참여는 동일한 요인들에 의해 추동되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지방정부와의 협력, 사업 참여와 같은 거버넌스적 참여로 갈지 아니면 시위와 집회와 같은 갈등적 참여로 갈지, 그 경로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지역사회 소속감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집회나 시위와 같은 이해관계의 갈등적 표출을 거버넌스적 참여라는 완화된 방식으로 유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더욱 강력한 지역사회 소속감인 셈이다. 이는 기존 연구들에서 지역 이기주의로 비판받았던 갈등적 지역참여 유형과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는 민관협력 형태로 각광받는 거버넌스 유형은 같은 동학에 의해 작동함을 의미한다. 이렇게 본다면, 과거 지역감정이나 지역주의로 비판 받았던 지역 사회자본과 지역정서들이 폐기되어야 할 전근대적 잔재가 아니라 또 다른 민주주의의 도덕적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한 제도적 참여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은 거버넌스적 참여와 갈등적 참여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과 정반대의 메커니즘을 보여준다. 제도적 참여 유형에 적극적인 응답자들은 이웃에 대한 신뢰는 물론,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과 정체성 역시 낮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공적 신뢰와 지역의존성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들은 거주 지역에 대한 애착과 정체성이 뚜렷하게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지역 이웃에 대한 신뢰와 소속감 역시 낮다. 따라서 이들은 투표라는 제도적 참여 이외에 지역민들과의 대면적 연결망을 필요로 하는 다른 형태의 지역사회 참여에 적극적이지 않다. 이들은 오직 거주 지역이 제공하는 물리적 환경에 대한 만족감을 가질 뿐이다. 분석결과로만 본다면 이들은 지역에 전혀 뿌리내리지 못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한 지역화된 대안 채널 없이 오직 투표라는 제도적 채널로만 지역사회 참여를 할 수밖에 없는 이들로 이해된다. 다시 말해, 지역 특수적 감정에 기반을 두어 일상적이고 연대

적인 참여를 추구하는 이들은 제도적 참여보다는 거버넌스적 참여나 갈등적 참여에 적극적인 가능성이 많으며, 그렇지 않은 이들은 제도적 참여에 보다 적극적인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이질적인 사회적 배경과 높은 사회적, 지리적 이동성을 갖는 다양한 주민들로 구성된 현재의 지역사회의 현실에서, 두 가지 유형의 사회자본은 최대화나 최소화가 아니라 모두가 최적화된 형태로 지역사회 참여를 유도하는 필수적인 요소임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그동안 시민들의 지역사회 참여 동인과 관련된 논의에서 사회자본에 비하여 관심을 받지 못했던 시민들의 지역에 대한 심리적 태도의 중요성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각 지역사회 참여 유형에서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신뢰와 호혜성이 각기 다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시민들의 비제도적, 제도적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통합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자본, 특히 이웃 간의 신뢰와 지역사회 소속의식에 대한 보다 복합적인 고려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서울이라는 특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에 본 연구의 결과를 한국의 모든 지역에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 설정한 지역사회의 범위도 각 지역의 환경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서울 지역으로 한정되어 논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본 연구의 또 다른 한계점은 기존 서울연구원의 서울서베이 데이터를 활용함에 따라 본 연구가 설정한 지역사회의 개념과 범위를 분석에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향후 본 연구의 문제의식과 분석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하여 지역 개념과 범위에 대한 규정 속에서 독자적인 설계된 서베이에 기반을 둔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국문 자료

- 김선혁, 김병국, 제고르즈 에키투, 정원철. 2006. “민주화와 시민사회의 대정부 항의: 비통성적 시민참여와 거버넌스.” 『한국행정연구』 15(3), 249-270.
- 김순은, 권보경. 2016. “도시공동체의 주민자치와 사회자본: 입주자대표회의의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30(1), 41-76.
- 김정훈, 최석현. 2018. “사회적 시민권과 참여소득에 대한 소고.” 『지역발전연구』 27(3), 119-146.
- 박병진. 2007. “사회참여, 신뢰와 민주주의 지지.” 주성수 편저. 『한국민주주의와 시민참여』. 서울: 아르케.
- 변미리, 민보경, 박민진, 계봉오, 임채운. 2017. 『통계로 보는 서울의 인구와 가구』. 서울: 서울연구원.
- 왕혜숙, 백용훈, 류석춘. 2011. “베트남 북부와 남부의 사회자본 비교: 페트남의 이탈리아 해석에 대한 도전.” 『동남아시아연구』 21(3), 43-103.
- 이재열. 1998. “민주주의, 사회적 신뢰, 사회적 자본.” 『사상』 37, 65-93.
- 이재혁. 1998. “신뢰의 사회구조화.” 『한국사회학』 32, 311-335.
- 이숙중, 유희정. 2010. “개인의 사회자본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치학회보』 44(4), 287-310.
- 이운복. 2013. “지역/고향 인터넷 커뮤니티의 보급과 지연의 변용: 다음의 상주시 지역/고향 카페를 사례로.” 『사회과학연구』 24(2), 113-140.
- 이현우, 이지호, 한영빈. 2011. “사회자본 특성이 지역주의에 미치는 영향: 결속형과 교량형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45(2), 149-171.
- 임희섭. 1999. 『집합행동과 사회이론』. 서울: 아르케.
- 정병은. 2007. “향우회 사회자본과 지역주의: 재경안동향우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3(3), 331-358.
- 정한울, 이곤수. 2013. “정치효능감과 정치신뢰의 조합이 정치 참여에 미치는 영향.” 『의정연구』 19(1), 212-244.
- 최석현, 윤상진. 2015. “연령별 투표율 차이에 관한 탐색적 연구: 정치지식을 중심으로.” 『동서연구』 27(4), 29-53.

영문 자료

- Bandura, Albert. 1997. *Self Efficacy*. New York: Random House.

- Cohen, Jean. 1999. "Trust, Voluntary Association, and Workable Democracy: The Contemporary American Discourse of Civil Society." In Mark. E. Warren ed. *Democracy and Trust*.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8-248.
- Coleman, James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supplement), 95-120.
- Davis, Mike. 2001. *Magical Urbanism Latinos Reinvent the US Big City*. New York: Verso.
- Dunham, A. 1970. *The New Community Organization*. New York: Crowell.
- Evans, Peter. 1996. "Government Action, Social Capital, and Development: Reviewing the Evidence on Synergy." *World Development* 24(6), 1119-1132.
- Ferguson, Ronald, and William T. Dickens. 1999. *Urban Problems and Community Development*. Political Science.
- Granovetter, Mark. 1973. "The Strength of Weak T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8, 1360-1380.
- Jorgensen, Bradley S. and Richard C. Stedman. 2001. "Sense of Place as an Attitude: Lakeshore Owners Attitudes Towards Their Properties."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1(3), 233-248.
- Lewicka, Maria. 2011. "Place Attachment: How Far Have We Come in the Last 40 Years?"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31(3), 207-230.
- Kasarda, John. and Morris Janowitz. 1974. "Community Attachment in Mass Societ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9, 328-339.
- Maclver, R.M. 1932. *Society: its structure and changes*. New York: Ray Long & Richard Smith.
- Marien, Sofie, Marc Hooghe, and Ellen Quintelier. 2010. "Inequalities in Non Industrialized Forms of Political Participation: A Multi Level Analysis of 25 Countries." *Political Studies* 58(1), 187-213.
- Manzo, Lynne C., and Douglas D. Perkins. 2006. "Finding Common Ground: The Importance of Place Attachment to Community Coalitions." *Journal of Planning Literature* 20(4), 335-350.
- Newton, Kenneth. 1997. "Social Capital and Democracy."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0(5), 575-586.

- Offe, Claus. 1999. "How Can We Trust Our Fellow Citizens." In Mark. E. Warren ed. *Democracy and Trust*.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42-87.
- Prezza, Miretta, Matilde Amici, Tiziana Roberti, and Gloria Tedeschi. 2001. "Sense of Community Referred to the Whole Town: its Relations with Neighboring, Loneliness, Life Satisfaction, and Area of Residence."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9(1), 29-52.
- Perkins, Douglas D. and Adam D. Long. 2002. "Neighborhood Sense of Community and Social Capital: A Multi-level Analysis." In Adrian T. Fisher, Christopher C. Sonn, and Brian J. Bishop, eds.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New York: Plenum Press. 291-318.
- Putnam, Robert D. 1993a.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New York: Princeton University Press.
- Putnam, Robert D. 1993b. "The Prosperous Community: Social Capital and Public Life" *American Prospects* 4(13), 35-42.
- Rohe, William M. and Michael A. Stegman. 1994. "The Effects of Homeownership." *Journal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60(2), 173-184.
- Ross, M.G. 1967. *Community Organization*. New York: Harper & Row.
- Sampson, Robert J. 1988. "Local Friendship Ties and Community Attachment in Mass Society: A Multilevel Systemic Model."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3, 766-799.
- Stedman, Richard C. 2002. "Toward a Social Psychology of Place: Predicting Behaviour from Place-based Cognitions, Attitude and Identity." *Environment and Behavior* 34(5), 561-581.
- Trentleman, Carla K. 2009. "Place Attachment and Community Attachment: A Primer Grounded in the Lived Experience of a Community Sociologist." *Society & Natural Resources* 22(3), 191-210.
- Tuan, Yi-fu. 1977. *Space and Place the Perspective of Experience*.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Warren, R. L. 1963. *Community in America*. Chicago: Rand McNally & Co.
- Woolcock, Michael. 1998. "Social Capital and Economic Development: Toward a Theoretical Synthesis and Policy Framework." *Theory and Society* 27,

151-208.

Verba, Sidney, Norman H. Nie, and Jae-On Kim. 1978. *Participation and Political Equality: A Seven-Nation Stud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첨부 1〉 분석 변수 기술 통계 결과

	N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지역사업참여	40,044	0.151	0.358	0	1
집회시위참여	40,044	0.136	0.343	0	1
투표참여	40,044	0.848	0.359	0	1
연령	40,044	49.802	15.685	21	97
주거형태	40,044	2.007	0.946	1	5
주거점유형태	40,044	1.495	0.682	1	5
학력	40,044	2.394	0.720	1	3
혼인상태	40,044	1.558	1.098	1	6
직업	40,044	4.473	1.928	1	9
임금소득	25,107	2.391	0.552	1	3
지역자부심	40,044	0.857	0.35	0	1
이웃신뢰	40,044	0.387	0.487	0	1
공공기관신뢰	40,044	0.327	0.469	0	1
지역사회소속감	40,044	0.777	0.416	0	1
지역의존성	40,044	0.806	0.396	0	1
지역거주기간(로그)	40,044	3.369	0.602	0	1

Abstract

**A Study of Micro-foundation of Local Governance
: Focusing on Social capital and Sense of Place in Seoul**

Seok Hyeon Choi ■ Yonsei University

Hye Suk Wang ■ Hongik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micro-foundation of local governance through analysing relational and psychological factors, social capital and sense of place which would motivate the participation of citizens for local society. This study categorises citizen's local participation as following types such as institutional participation, conflictual participation, and governance participation in order to compare relational and psychological factors affecting each participation type using Seoul Survey dataset 2017.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as one of the relational factors, neighbour trust positively affects both governance participation and conflictual participation. However, the sense of community as the other relational factors negatively affect conflictual participation, while it does not affect the governance community. The results also reveal that place identity as a psychological factor strongly affects both governance and conflictual participation, while it negatively affects institutional participation.

Key Words: Local Participation, Social Capital, Sense of Place, Governance

